

일본의 장수기업 현황과 시사점

일본에는 ‘창업 100년 이상’의 장수기업이 21,000개사가 존재하며, 이 중 도소매업종 및 연매출액 규모 5억 엔 미만이 최다를 차지. 2009년 세계경제는 ‘100년에 한번’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는데,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장수기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

- 일본에서 ‘창업 100년 이상’의 장수기업은 2009년 9월 말 현재 21,000개사로 파악
- 일본 동경상공리서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, ‘창업 100년 이상’된 장수기업은 개인기업, 각종 법인을 포함한 214만 4,155개사 가운데 1% 수준
 - 시기별로는 메이지시대가 82.1%, 에도시대가 16.6%를 차지

〈표 1〉 창업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 현황

창업시기	시대	기업 수(개)	구성비
~793	~ 나라시대	26	0.12%
794~1191	헤이안시대	45	0.21%
1192~1335	가마쿠라시대	27	0.13%
1336~1572	무로마치시대	74	0.35%
1573~1602	아즈치모모야마시대	94	0.45%
1603~1867	에도시대	3,496	16.65%
1868~1908	메이지시대*	17,238	82.08%
합계		21,000	100.00%

주: * 메이지시대는 1912년 7월까지 이어짐.
 자료: 東京商工リサーチ(2009.10.21)

□ 최고(最古)의 장수기업은 578년에 설립된 곤고구미(株)金剛組

- 1,4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회사는 세계 최장수 기업으로서 오사카에 위치해 있으며 목조건축공사업을 주요 업종으로 함.
- 이 회사의 연혁에는 아스카시대(552~645년)에 사천왕사의 건립을 위해 백제에서 건너간 3인의 장인이 창업한 것으로 기록

□ 지역별·업종별·매출액별 장수기업 현황

- 지역별: 동경(2,368개사), 오사카(1,164), 아이치(1,103), 교토(1,032), 니가타(886), 효코(730), 시즈오카(725), 나가노(612)의 순서
- 업종별: 도소매업(9,924개사), 제조업(5,709), 건설업 1,864), 숙박업·음식서비스업(828), 부동산업·물품임대업(732)의 순서
- 연간 매출액 규모별: 5억 엔 미만이 65.6%(13,784개사)로 최다. 10억 엔 및 100억 엔 이상은 각각 21.4%(4,494), 5.2%(1,096)를 차지. 또한 상장기업은 1.8%(388개사), 자본금 1억 엔 이상은 7.9%(1,662)

□ 최근 전세계 경기침체 하에서 기업의 지나친 ‘이익지상주의’ 를 경계하는 가운데 일본 장수기업들은 ‘본업 충실과 시대변화에의 유연한 대응’ 에 집중하면서 ‘기업규모에 걸맞는 경영’, ‘종업원 중시의 신뢰경영’, ‘창업 당시의 가훈·사훈 유지’ 등을 지속

- 일본 100년 장수기업의 4대 특징: ‘이기는’ 비즈니스모델의 구상력과 실행력, 이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문화 창출, 혁신과 진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조직과 사업방식, 이를 이끌어가는 리더 및 그 배출(半田純一. 2004. 『100年企業の研究』. 東洋經濟新報社)